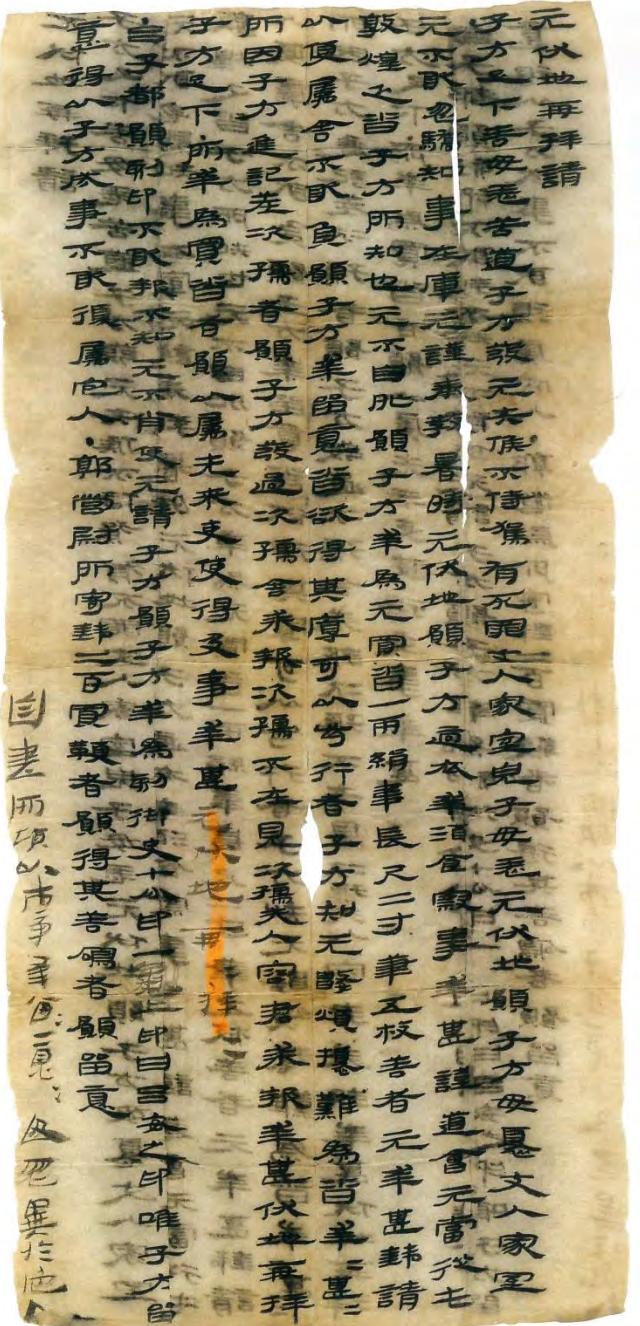


# 간백(簡帛)에 기록된 편지와 이에 반영된 고대 동아시아인의 일상

(Letters Written on Bamboo and Silk Manuscripts  
and the Daily Lives of Ancient East Asians thereof  
)

김경호 Kim, Kyungho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2023.03.30



# 간독(簡牘)을 통한 새로운 동아시아사의 이해 가능성

## - 주요 배경

1. 한국 : 20세기 후반, 한국 고대 목간의 본격적인 발굴, 소개, 정리
2. 중국 : 20세기 초 이래, 중국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3. 일본 : 한국 목간 발굴로 일본 목간 및 고대 한일문화 교류에 대한 이해 **再考**

### - '자료'로서의 간독

1. 당시의 언어로서 역사적 사실을 전달(당대 작성)
2. 출토지역의 성격을 이해 : 다양한 지역 교류 연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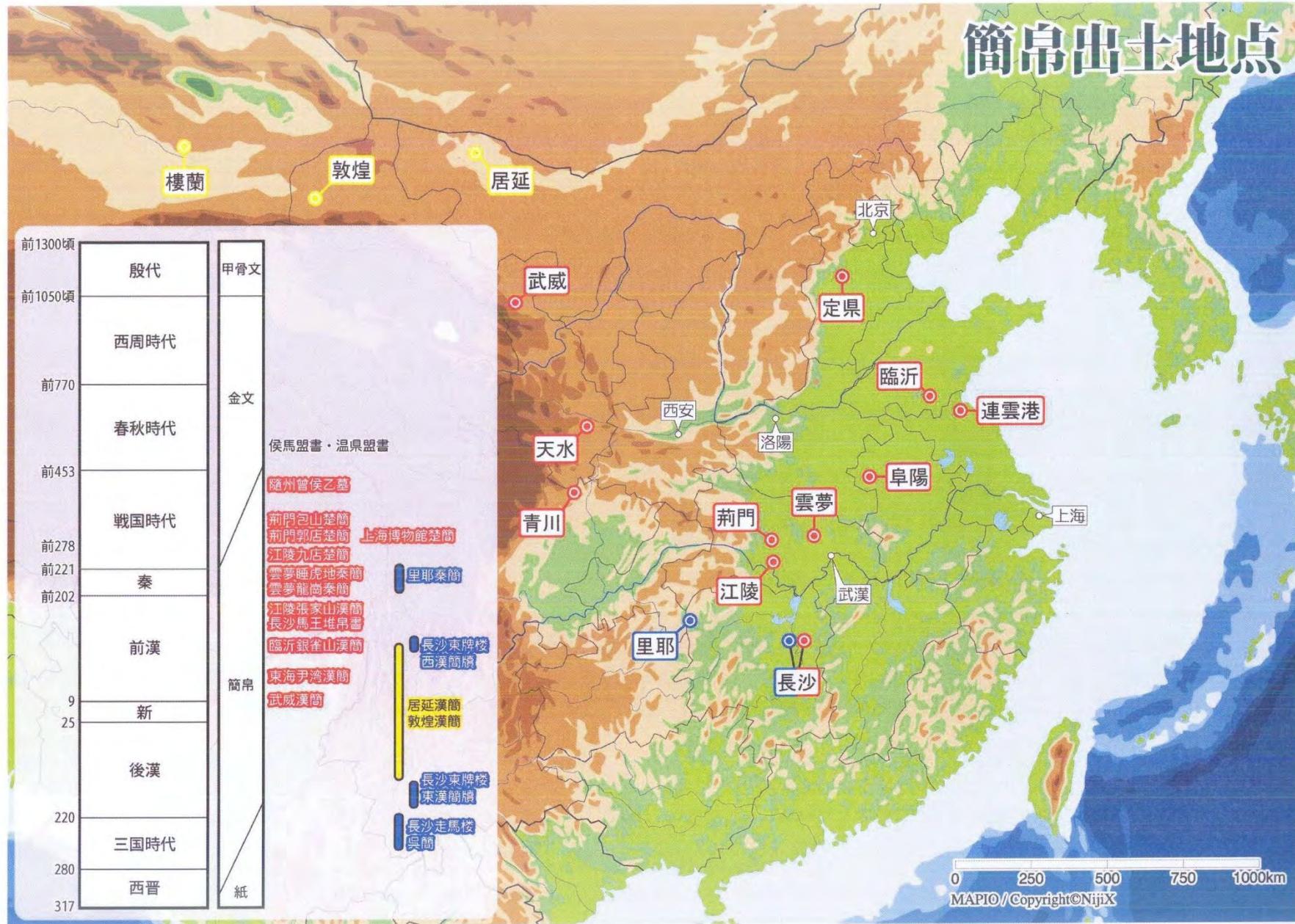
### - 간독을 통한 새로운 동아시아사의 이해 가능성

1. 지역적 관점에서 역사를 조망
2. 다국사적 문화교류의 실제 규명



문헌자료의 '역사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  
제고

# 簡帛出土地点



# 長江流域の出土地点



## 진한(QIN-HAN IN Ancient China) 문서 연구

### ○ 문서 :

- 고대 제국의 수립과 운영을 가능케 함 : “**문서의 힘(文書之力)**”(문서행정시스템의 구축)
- “**蕭何入秦, 收拾文書, 漢所以能制九州者, 文書之力也.**” (王充, 『論衡』 )
-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핵심 :

### ○ 20세기 簡牘자료 발견 이후 본격적인 연구 시작 : 거연居延, 돈황敦煌, 리야리耶

- ‘공문서’ 연구에 집중□ 문서행정의 구체적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 ‘사문서’(=편지?)에 대한 연구는 소략：
  - 1) 사안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해명과 직접적 관계 없음
  - 2) 당사자간의 이해를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 악군계절(鄂君啓 節)



악 : 지명  
계 : 악군의 이름

악군계 : 字 子晳  
초 회왕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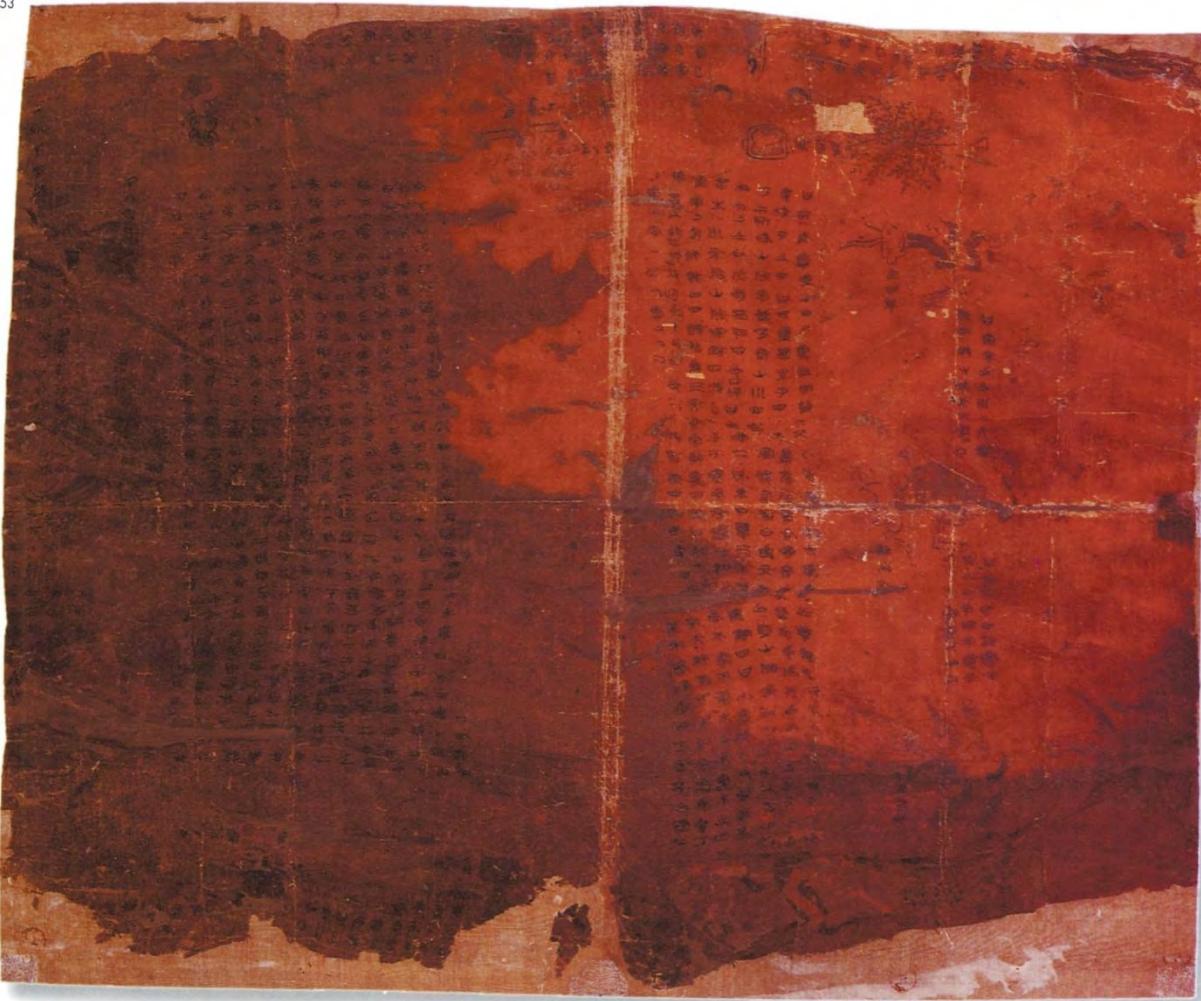
주절(舟節)과 거절(車節)로 구성.

초楚 회왕 懷王(B.C.323)이 악군계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과정 및 악군계의 수로, 육로의 교통운수 노선과 적재량, 운수종류와 납세 정황등을 상세히 규정. (운수화물의 면세 증명서)



전국시대\_죽간  
(竹簡)

253



초백서(楚帛書)

# 리야진간里耶秦簡(목간)

:

진시황시대

호남성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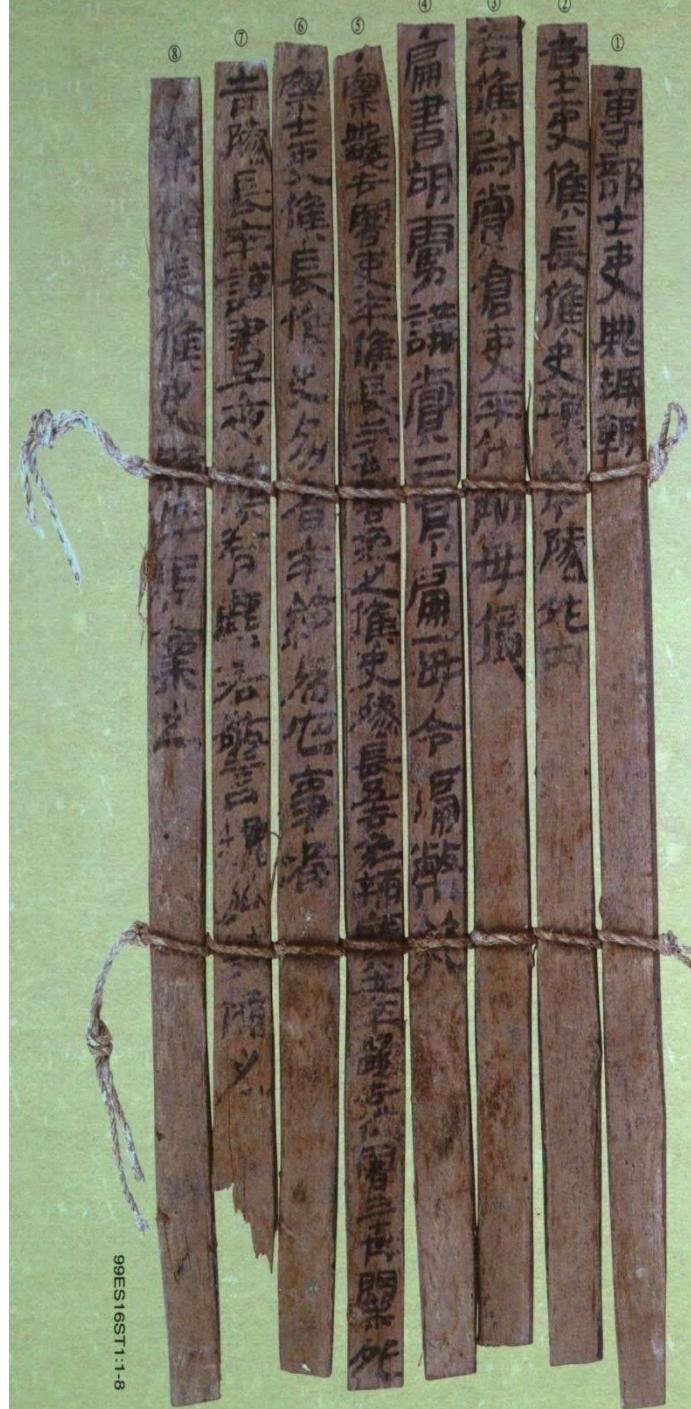


秦28年 낭야대 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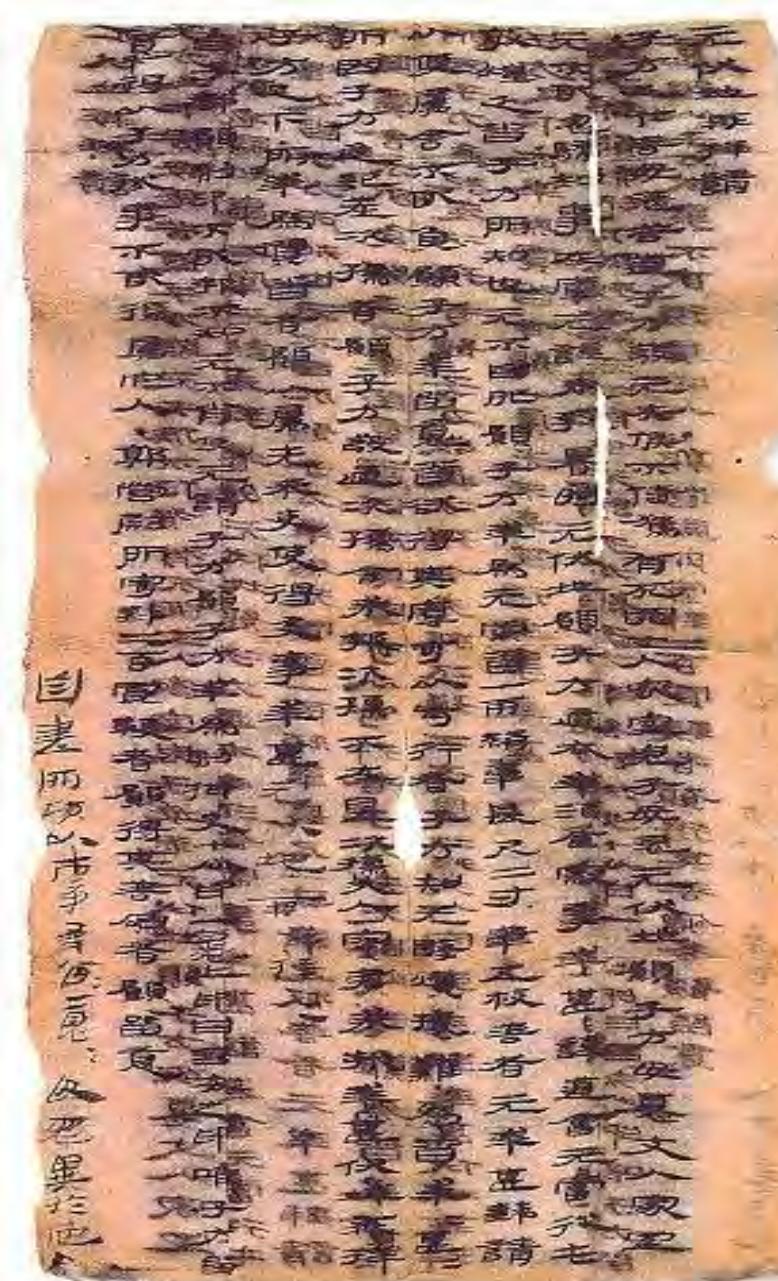
제  
(帝)

액제납한간  
(額濟納漢簡)





馬王堆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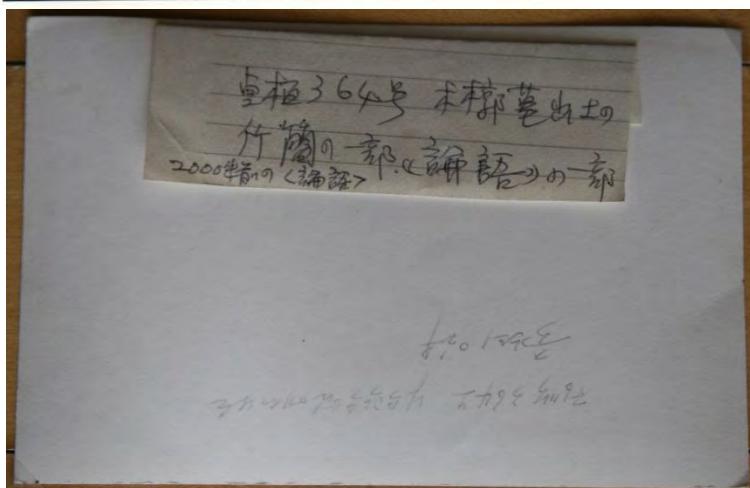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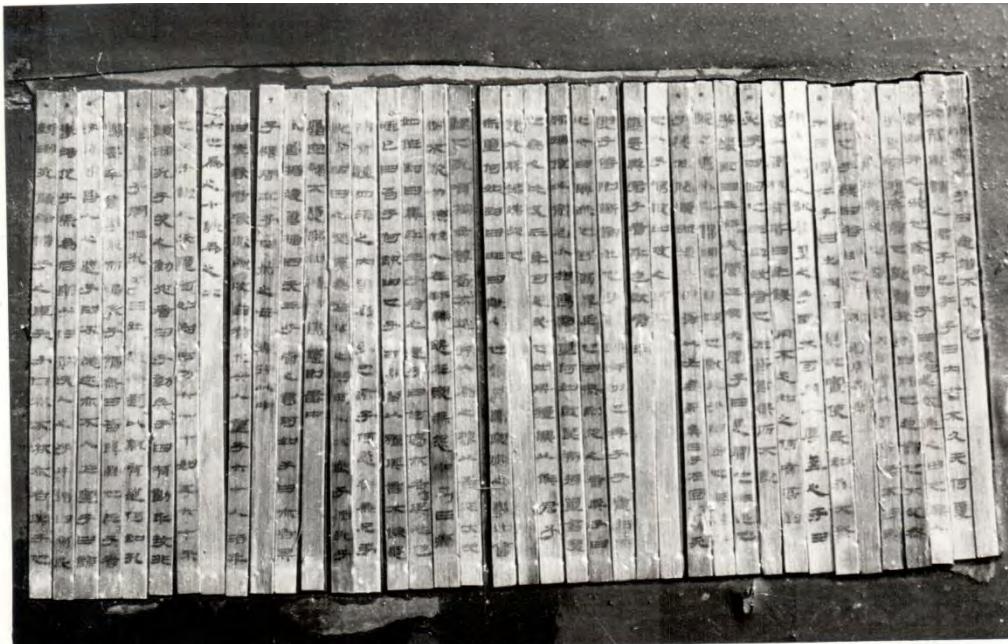


敦煌懸泉置\_私信(白書)

1973년, 하북성 河北省 정주시 定州市 팔가랑촌 八角廊村 40호 한묘 漢墓  
출토 : 660여매의 “정주논어죽간 定州論語竹簡”



1990년대 초, 평양平壤 낙랑樂浪 지역에서 통일거리를 건설할 때, 정백동 貞柏洞 364호 고분에서 “낙랑논어죽간 樂浪論語竹簡”이 발굴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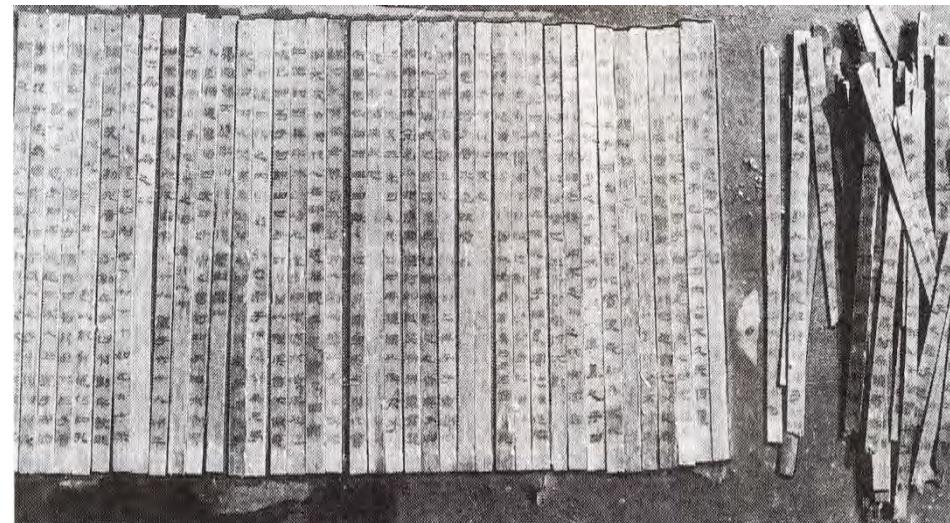
《論語》 죽간竹簡 :

총수량 : 44매

합계 765字。

- <선진先進> 33매 589자

- <안연顏淵> 11매 167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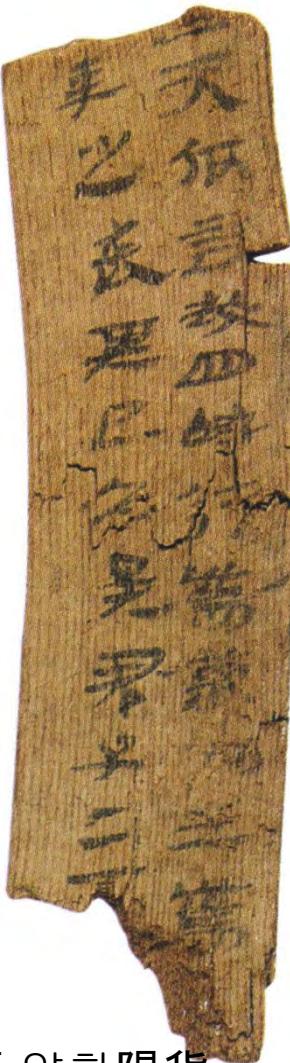


# 견수금관한관肩水金關漢簡

曰天何言哉四時行焉萬物生焉  
年之喪其已久矣君子三

73EJT24:833

論語 陽貨



毋遠慮必有近憂

73EJT24:802

論語 公衛靈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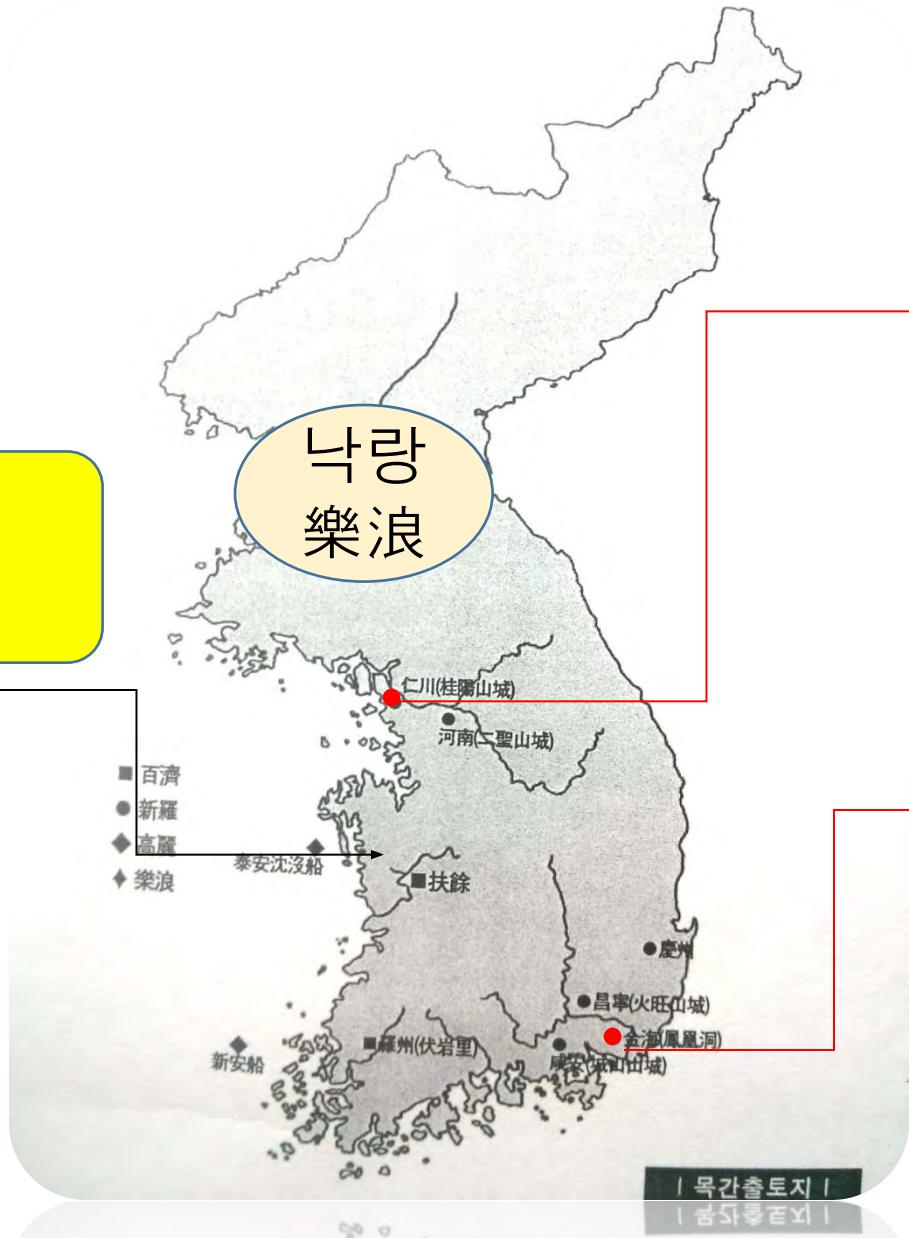
•子曰自愛仁之至也自敬知之至也

73EJT31:139



한국《論語》목간 출토지

부여  
扶 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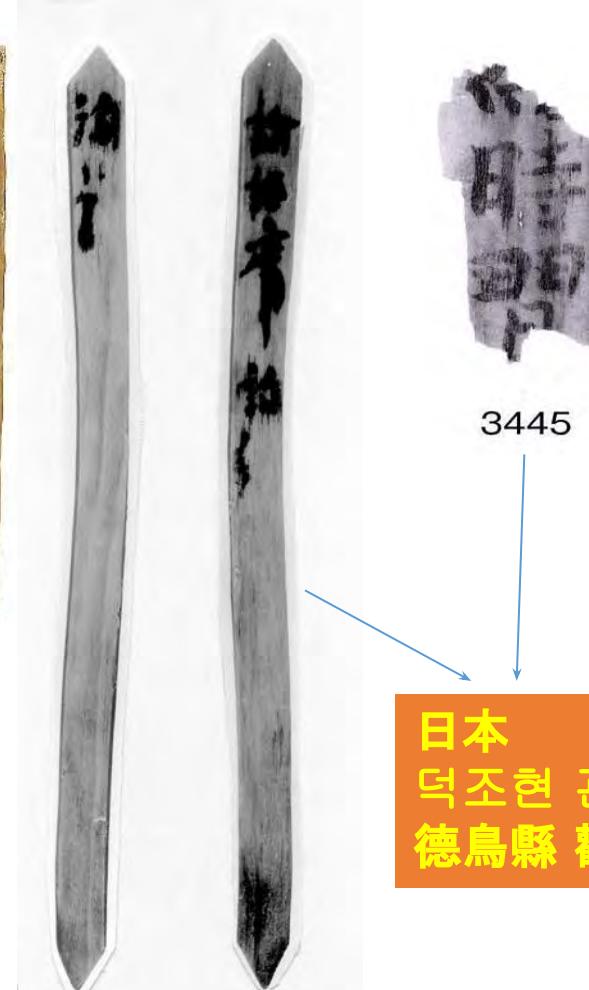
## 6-7세기 한국 목간 논어



김해 봉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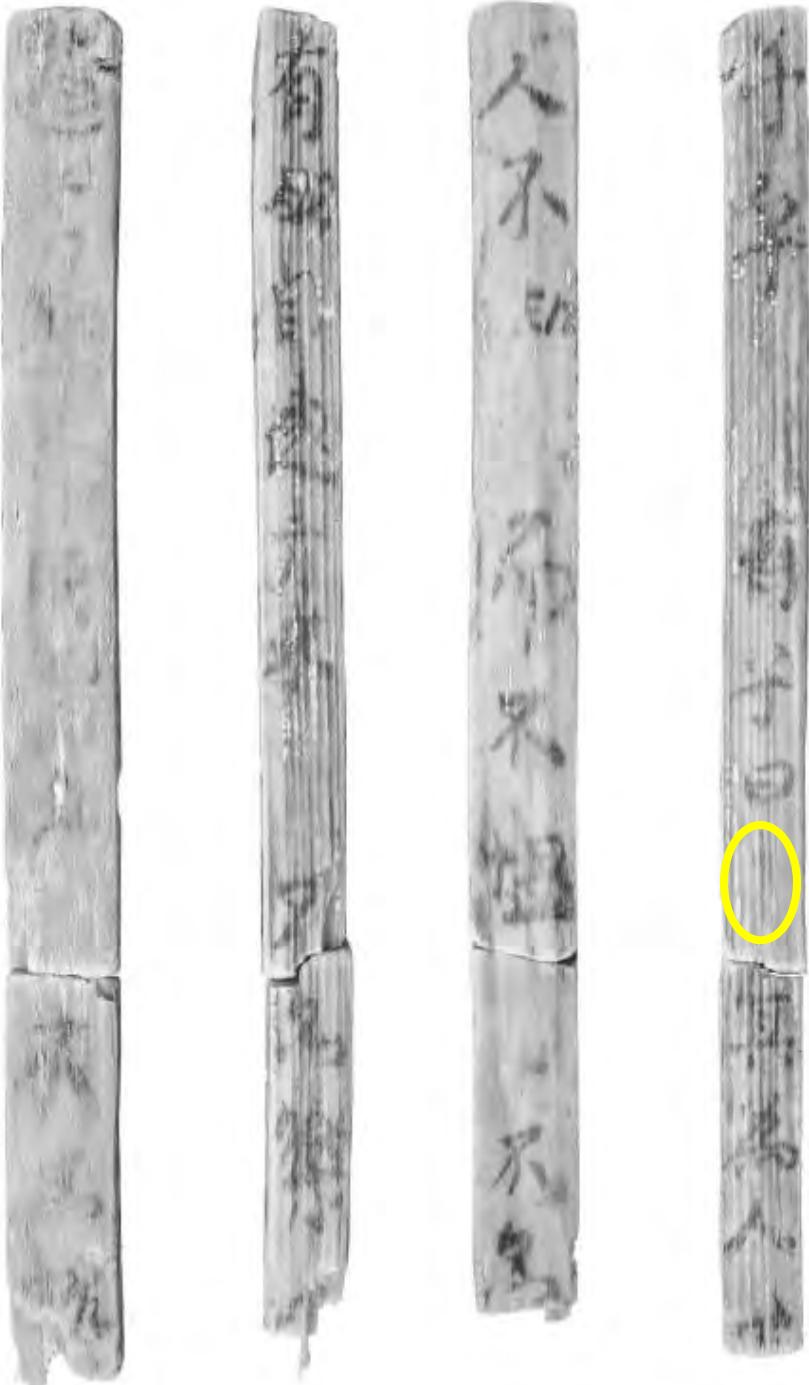
신라新羅 :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 일본日本 : 학령學令 “정현논어鄭玄論語”

## 7세기 후반 일본 논어 목간



日本  
덕조현 관음사  
德鳥縣 觀音寺

## 백제 쌍북리雙北里 《論語》 목간



子乎  
人不知  
有朋自遠方來  
子曰學而時習之

其為人也  
不亦樂乎  
不亦悅

- 띠어쓰기 : 고대 한국어 표현 어법  
**구결口訣**
- 공백空白 : 주석注釋 (?)

출토지 : 부여 쌍북리

길이 : 28cm

너비 : 1.8/2.5cm

도용 : 학이學而, 위정為政

# 구구표九九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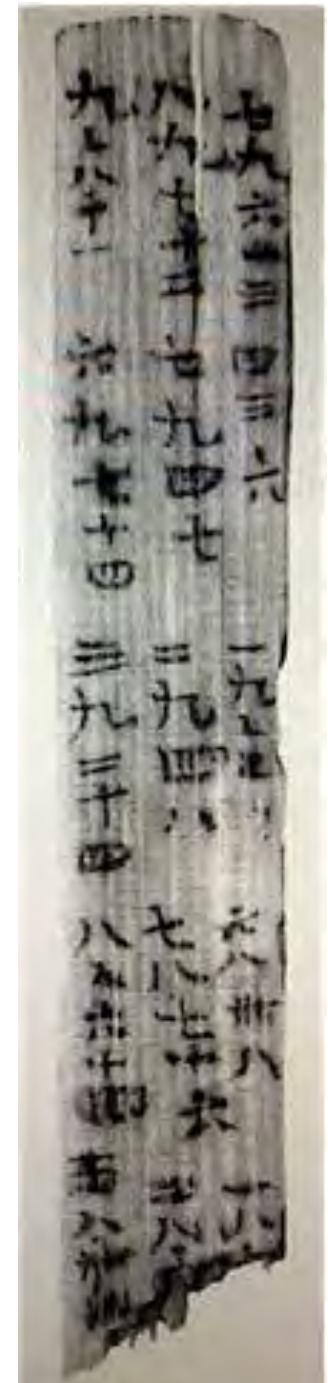
二九十八	三九十七	四九卅六	五九卅五	六九五十四	七九六十三	□□□十二	□□八十一
	二八十六	三八廿四	四八卅二	五八卅	六八卅八	七八五十六	□□六十四
		二七十四	三七十一	四七廿八	五七卅五	六七卅二	七七卅九
			二六十二	三六十八	四六廿四	五六卅	六九卅六
				二五而十	三五十五	四五廿	五九廿五
					一四而八	三四十二	四九十六
						二三而六	三九而九
九千一百一十二季		一半而一					二一而四

[秦 里耶출토구구단목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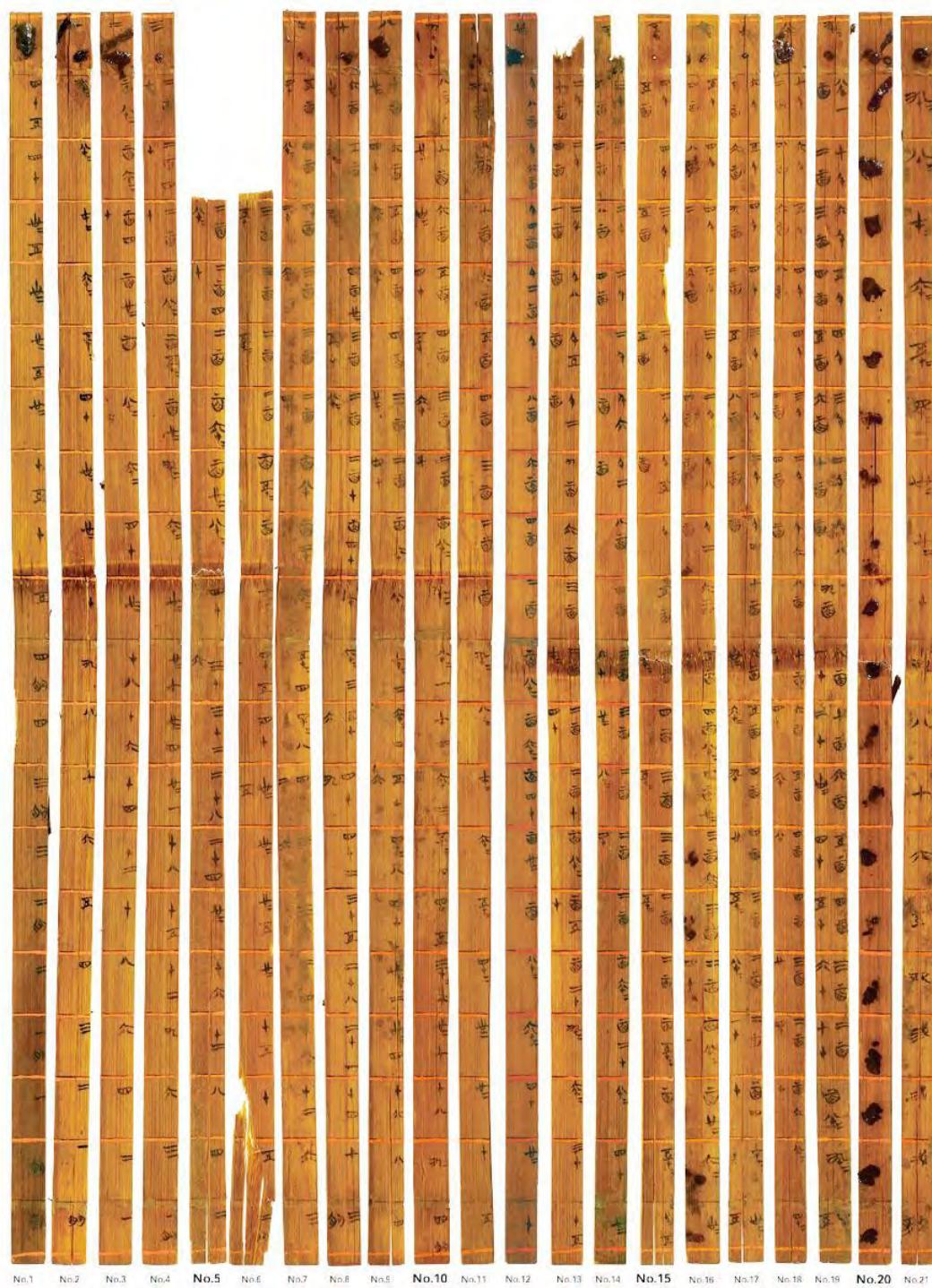


중국 호남湖南 리야里耶  
출토 : 진대 秦代

일본 대택곡내 유지  
日本 大澤谷內 遺址



# 《산표算表》



[1/2]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	●	●	●	●	●	●	●	●	●	●	●	●	●	●	●	●	●	●	
45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900	1800	2700	3600	4500	5400	6300	7200	8100	● 90
40	80	160	240	(320)	400	480	560	640	720	800	1600	2400	3200	4000	4800	5600	6400	7200	● 80
35	70	140	210	280	350	420	490	560	630	700	1400	2100	2800	3500	4200	4900	5600	6300	● 70
30	60	120	180	240	300	360	420	480	540	600	1200	1800	2400	3000	3600	4200	4800	5400	● 60
25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 50
20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200	3600	● 40
15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600	800	1200	1500	1800	2100	2400	2700	● 30
1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 20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 10
4.5	8	18	27	36	45	54	63	72	81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 9
4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160	240	320	400	480	560	640	720	● 8
3.5	7	14	21	28	35	42	49	56	63	70	140	210	280	350	420	490	560	640	● 7
3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120	180	240	300	360	420	480	540	● 6
2.5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 5
2	4	8	12	16	20	24	28	32	36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 4
1.5	3	6	9	12	15	18	21	24	27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 3
1	2	4	6	8	10	12	14	16	18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 2
1/2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 1
1/4	1/2	1	1.5	2	2.5	3	3.5	4	4.5	5	10	15	20	25	30	35	40	45	● 1/2

《산표算表》

$$81 \times 72 = ?$$

1/2	1	2	.....	70	80	90		
•	•	•	.....	•	•	•	•	
45	90	180	.....	6300	7200	8100	•	90
40	80	160	.....	5600	6300	7200	•	80
35	70	140	.....	4900	5600	6300	•	70
...	...	...		...	...	...	...	...
1	2	4	.....	140	160	180	•	2
1/2	1	2	.....	70	80	90	•	1
1/4	1/2	1	.....	35	40	45	•	1/2

$$5600 + 160 + 70 + 2 = 5832$$

# 《산표算表》의 계산법

1/2	1	2	.....	70	80	90		
•	•	•	.....	•	•	•	•	
45	90	180	.....	6300	7200	8100	•	90
40	80	160	.....	5600	6400	7200	-	80

$$71 \frac{1}{2} \times 92 \frac{1}{2} = ?$$

⋮	⋮	⋮		⋮	⋮	⋮	⋮	⋮
1	2	4	.....	140	160	180	•	2
1/2	1	2	.....	70	80	90	•	1
1/4	1/2	1	.....	35	40	45	•	1/2

$$71 \frac{1}{2} \times 92 \frac{1}{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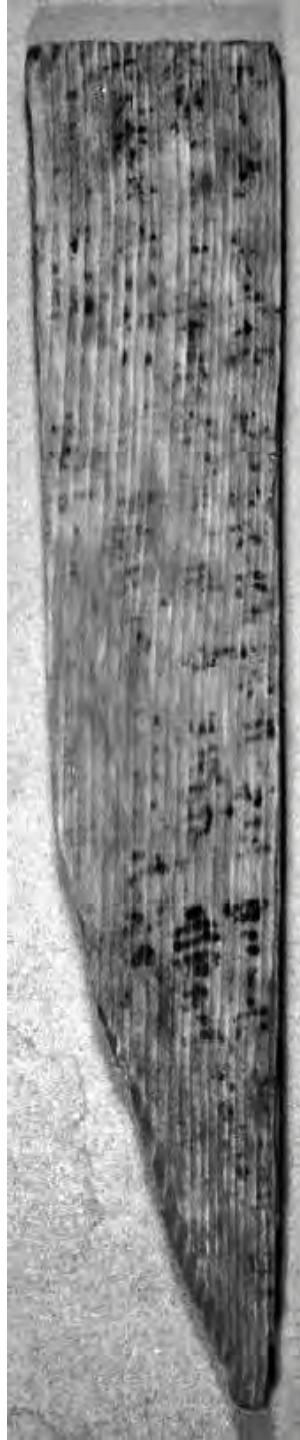
$1/2$	1	2	.....	70	80	90		
•	•	•	.....	•	•	•	•	
45	90	180	.....	6300	7200	8100	•	90
40	80	160	.....	5600	6300	7200	•	80
35	70	140	.....	4900	5600	6300	•	70
...	...	...		...	...	...	...	...
1	2	4	.....	140	160	180	•	2
$1/2$	1	2	.....	70	80	90	•	1
$1/4$	$1/2$	1	.....	35	40	45	•	$1/2$

$$6300 + 90 + 45 + 140 + 2 + 1 + 35 + \frac{1}{2} + \frac{1}{4} = 6613 \frac{3}{4}$$

## 부여 쌍북리 출토 구구표



## 발굴정황 發掘情況



개인편지(私  
信)

## 진한시기 서신의 전반적 상황

- 사문서[편지] 연구의 의의 :
    - 공문서와 달리 개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 상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
    - 민간 사회의 실제 생활상 이해
  - 문헌에 보이는 편지 :「報任安書」, 「答蘇武書」
    - 당시의 사회 실상에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
  - 진한 간독자료 : 秦漢시기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제 방면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날것으로서의 자료 [raw material]라는 가치
    - : 李均明, 《秦漢簡牘文書分類輯解》(文物出版社, 2009년); 개인 편지를 '私記'로 분류, 書信 74封을 정리
    - : 楊芬, 《出土秦漢私信匯校集注》(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2010년) ; 진한대 출토 간독자료의 상세한 註釋
  - 서신 형태
    - 비단[帛]이나 목간[牘]
    - 백서帛書 : 돈황한간 敦煌漢簡에서 2점, 1990년대 초의 현천懸泉 한간漢簡의 2점
    - 독(牘) : 1척 尺 (=23cm)이 표준이었고 편지의 경우도 길이 1尺인 경우가 대부분
- 척독(尺牘) : 한대는 물론 명청시기, 조선 후기에도 개인 편지를 의미하는 짧은 편지글 형식으로 사대부 문인들의 교류나 일상의 사적 감정을 표현
- 기원 : 진한대의 편지

## 편지 출토지점

거연

견수금  
관

도황

서안

○ 발신자(發信者)와 수신자(受信者) 및 편지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완정간(完整簡) (표 참조)

명칭(수량)	발굴지	작성연대	주요 내용
睡虎地4號秦墓木牘(2)	호북성 운몽현 수호지 4호묘	진시황 통일시기	<黑夫、警與中書>(M4:11)(1-2) <警與中書>(M4:6)
天長漢墓簡牘(8)	安徽省 天長市	전한시기	<丙充國與孟書>(M19:40-5) <賁且與孟書>(M19:40-10) <莞檮與孟書>(M19:40-15) <與幼功書>(M19:40-18) <遂與孟書>(M19:40-20) <佚名書信>(M19:40-2) <方被與孟書>(M19:40-12) <霸與孟書>(도판 미공개)
敦煌漢簡(5)	감숙성 돈황일대	후한시기	<候普與左子淵書>(敦 7) <兒尚與楊掾書>(敦 244) <時與翁糸書>(敦 1448) <某言書>(敦 1612) <政與幼卿、君明書>(敦 1871), 帛書 그 외 殘簡信 約71封
懸泉置漢簡(2)	감숙성 돈황시 동쪽 61Km 지점에 있는 漢代 懸泉置 유지	전한시기	<建致中公、夫人書> (ii90DXT0114③:610), 帛書 <元致子方書> (ii90DXT0114③:611), 帛書
敦煌人頭疙瘩漢簡(2)	敦煌市 人頭疙瘩의 烽燧 유지	왕망시기	<習書信集>(88DYTGCG: 3-6) (5-2) <宏與巨先書>(88DYTGCG: 6)
居延漢簡(12)	额濟納 유역의 大灣 地灣 破城子 등	전한武帝~후한光武帝 시기	<宣與幼孫、少婦書>(10.16, A33 地灣) <愛與子嚴書>(142.28, A8 破城子) <信與次君、君平書>(乙附51, A35 太灣), 帛書 <初與丈人書>(乙附51, A35 太灣), 帛書 <蕭晏與李子真書>(35.20, A8 破城子) <泉與丈人書>(73.9, A8 破城子) <謝范子恩記>(101.24+276.10, A8 破城子) <給使燧長周仁奏書>(157.10, A8 破城子) <弘與子長書>(157.25, A8 破城子) <廣意與長賣、孝君書>(408.2, P9 博羅松治) <彭與子侯書>(495.4, A35 大灣) <曹宣與董房、馮孝卿書>(502.14+505.38+505.43, A35 大灣)

<p>居延新簡 (10)</p>	<p>額濟納 유역의 城子·肩水金關 甲渠塞第四烽 지</p>	<p>破  및 등</p>	<p>전 한 昭帝 에서 후한 安帝 시기</p>	<p>&lt;葉宋乃始張伯丈與子翹子玉書&gt;(EPT50.42) &lt;馬建與張掾書&gt;(EPT2.5) &lt;習與某君書&gt;(EPT44.4) &lt;夏君壯與少平書&gt;(EPT44.5-6) &lt;夏君壯與某君書&gt;(EPT44.8) &lt;敵與子惠書&gt;(EPT51.203) &lt;戎宴請書&gt;(EPT51.224) &lt;充與中君次公書&gt;(EPT56.87) &lt;富與高執事書&gt;(EPT65.200) &lt;佚名與某掾書&gt;(EPT22.463) 그 외 残簡信 약 160封</p>
<p>東牌樓漢簡 (9)</p>	<p>湖南省 長沙市 5·1 광장 주변의 東牌樓 古井</p>		<p>後漢 靈帝 시기</p>	<p>&lt;熙致蔡主簿書信&gt;(33) &lt;堂致陳主簿書信&gt;(34) &lt;侈致督郵某書信&gt;(35) &lt;舉致掾某書信&gt;(36) &lt;君書信&gt;(48) &lt;原書信&gt;(49) &lt;津書信&gt;(50) &lt;佚名書信上&gt;(55) &lt;諾致某先進書信&gt;(39+40) 그 외 残簡信 약 32封</p>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額濟納漢簡 張家界古人堤東漢漢牘, 長沙尚德街東漢簡牘 등)

## 간독에 기록된 편지의 이해

### 1. 편지 간백의 유형과 서사 형태

- 형식과 관용적 표현 정리 □ 진한시기 뿐 아니라 이후 동아시아 사회에 공통

### 2. 내용 분석 :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일상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

### 3. 지식인 교류 및 내면의 심성(心性) 이해

- 식자층이 편지의 발신/수신인 경우가 대부분
- 내용을 통한 개인간의 교류 이해, 관련 사안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공

私信의 구조와 주요 특징 :  
표제가 없는 편지



- 발신인은 자신을 낮추고 수신자에 대한 존경을 표함 : “伏地再拜”, “伏地叩頭”, “伏地”, “頓首再拜”, “頓首”, “再拜”, “坐前” 등의 관용적 표현.
- 문현에서는 “足下”, “頓首”, “再拜” 등의 표현만 보임
- 한대 중후기 배례와 문후에 대한 고정된 관용 표현은 찾기 어려울 듯 함.

1) 돈황한간(<政與幼卿、君明書>  
(《敦》 1871)

발신자 : 정(政)

⑦ 수신자, ⑤ 존경칭호(敬稱), ④ 배례(拜禮), ③ 본문, ② 편지 끝 부분 인사(信末問候), ① 배례(拜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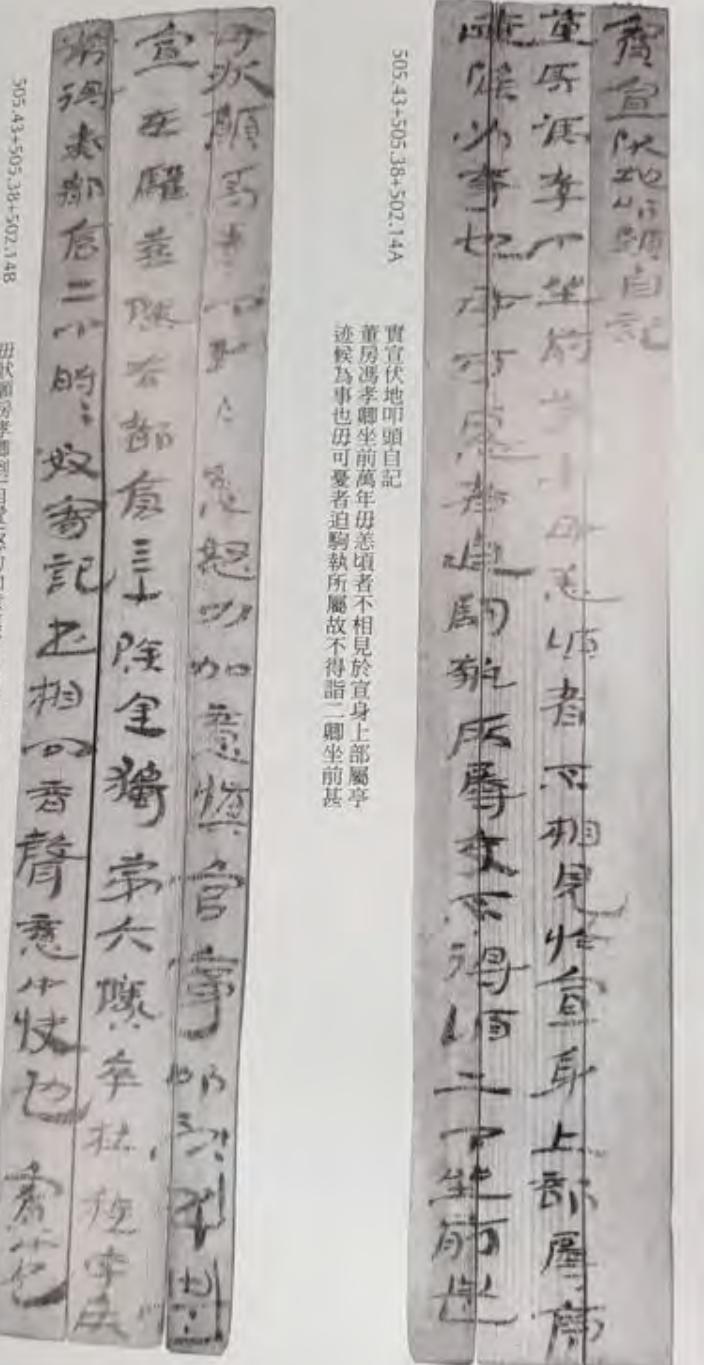
政伏地再拜言 【1】 :

① 幼卿、君明 ⑤ 足下, ② 母恙。久不明相見, 夏時, 政伏地願幼卿、君明適衣進食, 察郡事。② 政 【2】  
居成樂五歲餘, 未得遷。道里遠辟, 回往來希, 官薄身賤, 書不通。叩頭叩頭。因 【3】  
同吏郎今遷爲敦煌魚澤候守丞, 王子方。政叩頭, 諸願幼卿幸爲存請。□君倩 【4】  
不會御, 不北邊居, 歸未有奉奏。叩頭叩頭。太守任君正月中病, 不幸死。太守□□□ 【5】  
猛。③ 政得長奉聞幼卿、君明嚴教, 舍中諸子母恙, 政幸甚。謹因□ 【6】  
④ 幼卿、君明足下, 因請長實、子仲、少實諸弟。 【7】

(정은 엎드려 재배하며 문안을 올립니다. 유경 · 군명 족하께서는 별고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회포를 풀며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 여름에 정이 엎드려 바라건대 유경 · 군명 족하께서는 옷을 알맞게 입고 식사도 잘 하시면서 군의 정사를 살피십시오.

정은 성락현에 있은 지 5년인데 아직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길이 외지고 너무 멀어 왕래가 드물었으며 미천한 말단의 관리가 편지를 보내니 잘 도착하지 못한 듯 합니다.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리랑은(?) 지금 자리를 이동하여 돈황 어택후의 승의 지위를 임시로 맡게 되었습니다. 왕자방(?). 정은 머리를 조아리노니, 바라건대 유경께서는 부디 그를 위하여 보살펴주십시오. (광연현장) 군천은 일찍이 (고을을) 다스리지 못하여 북변에 머물지 못하다가 돌아와서 아직 상주하지 못하였습니다. 거듭 머리를 조아립니다. 임태수께서는 정월에 병에 걸려 불행히도 운명하였습니다. 태수는 □□□ 맹렬하였습니다.

정은 유경 · 군명께서 지엄하게 분부를 내리며 댁의 자제분들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삼가 들으니 몹시 다행입니다. 삼가 □에 인하여 유경 · 군명 족하를 통하여 이어서 장실 · 자중 · 소실 아우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505.43+505.38+502.1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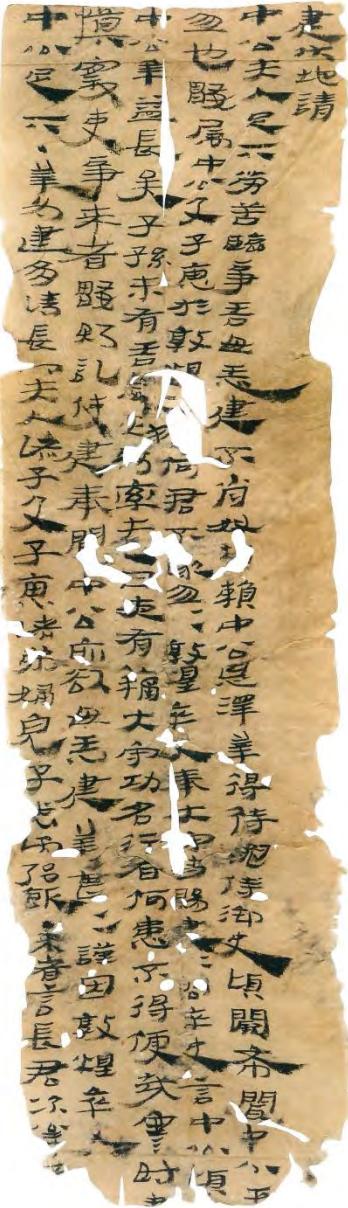
## 曹宣伏地叩頭白記 【1】

董房、馮孝卿坐前，萬年母恙，頃者不相見。於宣身，上部屬亭【2】跡候爲事。它母可憂者。迫駒(驅)執所屬故，不得詣二卿坐前，甚【3】母狀。願房、孝卿到自愛，怒(努)力，加意，慎官事·叩頭幸甚。【背1】宣在驩喜隧，去都倉四十餘里，獨第六隧卒杜程李侯，【背2】常得奏都倉，二卿時時數寄記書，相問音聲，意中快也。實中兄【背3】

(저 조선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고합니다.)

동방、마효경께서는 항상 무탈하십니까. 근래 서로 뵙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신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部)에 속한 정(亭)에서 순찰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걱정할만한 일은 없습니다. 소속된 것에서 집행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급박하기 때문에, 두 분 계신 곳에 찾아뵙지 못했으니, 심히 면목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동방、마효경께서는 빈틈없이 스스로를 잘 돌보아 몸을 관리하시고, 일에 집중하여 맡으신 직무를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환희수(驩喜隧)에 있으니, 도창(都倉)과의 거리가 40여리 떨어져 있어 제6수줄 두정 이후만이 항상 도창에 아뢸 수 있으니, 두 분께 시시때때로 자주 편지를 보내어 서로 안부를 묻는다면 진심으로 기쁠 것입니다. 실증형)

2)거연한간(<曹宣與董房、馮孝卿書>  
502.14+505.38+505.43



## 建伏地請 [1]

中公、夫人足下，勞苦臨事善母恙。建不肖(驚)頓(鈍)，賴中公恩澤，幸得待罪侍御史。頃闕希聞中公□□【2】忽也。數屬中公及子惠于敦煌□□何君，不敢忽忽。敦煌卒史奉大(太)守書賜建，建問卒史，言中公頃□【3】中公幸益長矣，子孫未有善，歲賜錢，率夫人日夜有以稱大(太)守功名行者，何患不得便哉！塞時□□【4】慎察吏事，來者數賜記，使建奉聞中公所欲母恙，建幸甚幸甚。謹因敦煌卒史□【5】中公足下。●幸爲建多請長卿、夫人、諸子及子惠諸弟、婦、兒子，悉爲彊(強)飯。●來者言長君、次公□□[16]□。【6】

길이 : 세로 19, 가로 5

“●” : 주제(내용) 전환

- 1) 建 : 현재 시어사의 직책
- 2) 가족과 함께 돈황에 감, 이 곳 현천치가 중공의 근무지
- 3) 돈황졸사 : 건이 태수나 중공과 서신 왕래 시, 돈황졸사가 중간에서 전달
  - 졸사 : 도위부에 소속된 문관으로 문서행정을 담당
  - 건이 졸사에게 중공의 근황을 물은 이유 : 친분관계, 졸사의 업무로서 가장 신속 정확하게 중공과 관련한 근황을 파악
- 4) 중공이 건의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 : 두 집안 사이의 친분 두터움
- 5) 건의 인맥 : 장경, 장군, 차공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
  - 부인과 자제에게도 안부

건이 엎드려 인사드립니다:【1】

중공, 부인 족하!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못난 저는 노둔하나 중공의 은택으로 다행히 시어사를 부족하게나마 맡게 되었습니다. 근래 중공의 소식을 거의 듣지 못하였습니다.【2】돈황으로 □□하군께 중공과 아드님 혜의 소식을 누차 부탁드리고 감히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돈황졸사가 태수의 서신을 받들어 제게 내려주었는데, 제가 졸사에게 물어보니 중공의 근황을 말해주었습니다.【3】중공의 크신 은덕 덕분에 제 자손도 다 감사드리지 못할 텐데 매년 돈까지 내려주시니, 처자식을 데리고 밤낮으로 힘쓰신 바가 태수의 본분에 걸맞은 것을, 무슨 근심거리가 또 있겠습니까! 추운 날 (어려움을 무릅쓰고)【4】공무에 힘쓰시는데, 앞으로도 자주 서신을 내려주시어 제 바람대로 중공께서 무탈하심을 제게 알려주신다면, 저는 아주 아주 다행일 것입니다. 삼가 돈황졸사를 통해서 중공 족하께 (서신을 올립니다.)【5】● 삼가 제 대신에 장경과 부인·자제분 및 아드님 혜와 여러 아우들·부인·아드님께 안부를 여쭈어주시고, 모두 식사 잘들 챙겨 드십시오. ● 다음번에 장군·차공 □□ 같은 분의 소식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6】)

### 1)-3) 간의 공통 구조 :

- 【1】 : ‘발신자+拜禮(‘伏地再拜’, ‘伏地叩頭’, ‘伏地’ ; 자신을 낮추는 표현)+아뢰는 표현(啟事)’
- 【2】 : 수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경칭, 그리고 안부인사[問候]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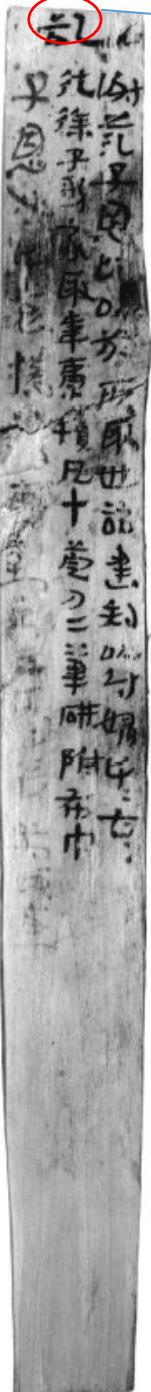
출토간백사신	발신자	拜禮	啓事	수신자	수신자에 대한 敬稱	서신 시작 안부	본문	편지 말미 안부	배례
①돈황한간	政	伏地再拜	言	幼卿 君明	足下	母恙…察郡事	政居成榮 五歲餘… 太守□□ □猛	政得…政幸 甚	謹因… 少實諸弟
②거연한간	曹宣	伏地叩頭	記	董房 馮孝	坐前	萬年母恙、 頃者不相見	於宣身… 意中快也		
③돈황현천치 한간	建	伏地	請	中公 夫人	足下	勞苦臨事善母 恙	建不肖… 中公足下	● 幸為建多請 長卿…	

- 한대 간백 서신에서 확인되는 배례 :

“伏地再拜”, “伏地叩頭”, “伏地”, “頓首再拜”, “頓首”, “再拜”, “白”, “叩頭”, “坐前”, “叩安”  
등의

관용적인 표현이 보편화

- 문헌 : “再拜” 또는 “足下”의 표현만 보임(?)



## 표제 (記)

記: 【1 上】

謝范子恩，頃口前所取世詔書刺以付婦。幸甚幸甚。【1下一欄1】

從徐子勝家取韋橐積凡十，莞刀二，筆、研、附布巾。【1下-欄2】

子恩狀良意惓惓 口口到所言前頃車。【1下-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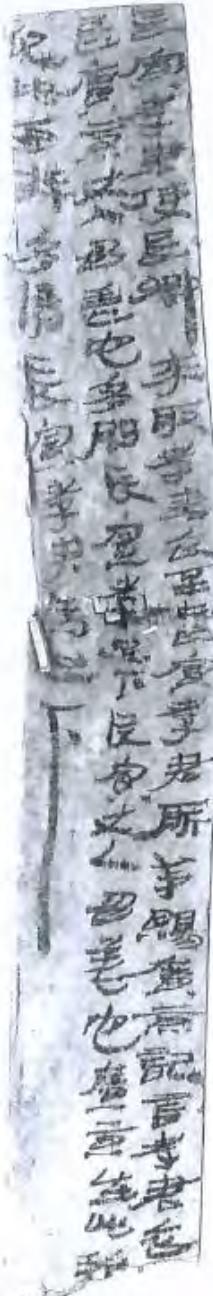
(범자은께 아립니다. 근래에 전에 받은 世詔書刺를 아내에게 보냈으니 매우 다행입니다.

서자승(徐子勝)의 집에서부터 가죽전대를 취하여 모두 10개를 챙겨두었고, 서도 2자루, 봇, 벼루를 포건에 동봉하였습니다. 범자은의 상황이 괜찮으시고, 뜻이 좋으시니(확실하시니), □□ 말한 대로 전에 (갔던) 수레로 도착할 것입니다.)

- 안부를 묻는 내용과는 관련성이 적음
- 발신인이 범자은에게 물품 교부 내용을 보고(발신- 불명, 수신-범자은)
- 공문서인 簿籍과 비교적 유사한 行文 격식

408.2B

長賓孝君使長卿來取孝君衣至長賓孝君所幸賜廣意記言孝君衣  
長廣意丈人毋恙也多問長賓孝足下長賓丈人毋恙也廣意□此口  
伏地再拜多請長賓孝君馬足下



408.2A

廣意伏地再拜

進書

□長賓足下



## 廣意與長賓、孝君書

저는 땅에 엎드려 재배합니다. 저희 집의 어르신은 글을 올립니다. 효군의 옷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실 족하게 아립니다.

장실, 효군께서는 장경에게 와서 효군의 옷을 취하도록 하였으니, (장경이) 장실、효군의 거처에 이르렀다가, 여행 히 저에게 서신을 주며, “효군의 옷은 □□, 광의댁네 어르신께서는 무탈하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장실 족하에게 누차 묻습니다: 장실댁네 어르신은 무탈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땅에 엎드려 재배하고 장실 효군 등 족하에게 거듭 청합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이 하나의 목록에 동시에 기입
- 발신인 : 廣意, 수신인: 長賓, 전달자: 長卿
- 주요 내용 : 장경은 장실과 孝君이 사는 곳에 와서 효군의 옷을 취하였고, 장실과 효군은 그를 통하여 광의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광의는 회답으로 이 사신에서 장실 부자(父子)의 안부를 묻는 내용

卿□(體)不便，前日幸爲書屬宋  
緣使橫請：

東陽丞莞橫宜身至牀下，旣(迫)  
不給，謹請司空伏非(罪)奉謁，  
伏地再拜謝，因伏地再拜請病，  
□□馬足下(정면)

進

謝卿(배면)

卿의 몸이 편치 않으셔서,  
지난번에 東陽丞莞橫는 응당  
직접 床下에 이르러야 하나,  
급박하여 겨를이 없었으니,  
삼가 司空이 삼가 사죄하고 奉  
謁하기를 삼가 청하니, 伏地再  
拜하고 아뢰니, 인하여 伏地再  
拜하고 환자에게 안부를  
여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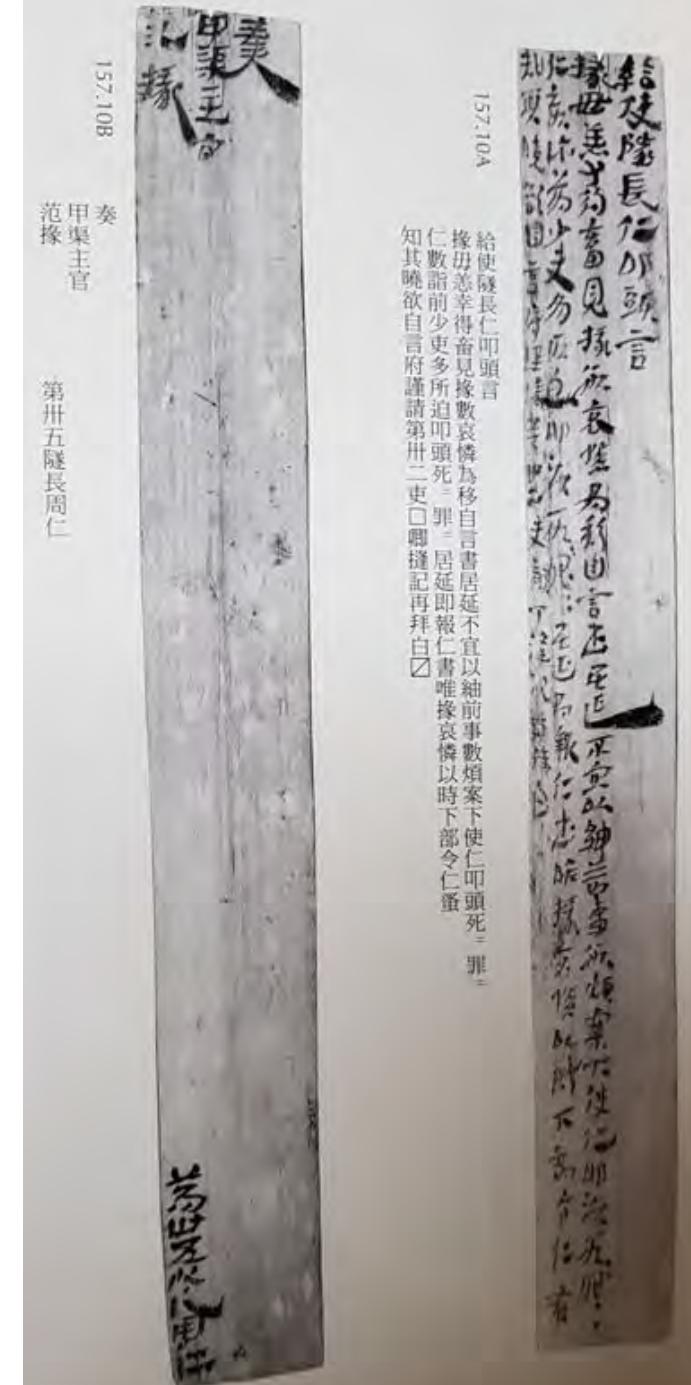
□□馬足下

바칩니다. 경에게 아립니다

발신인 “莞橫”

수신인 “謝孟”

<莞橫與孟書>(M19:40-15)



발신인 “周仁”， 수신인 “汜  
掾”

<給使燧長周仁奏書>(157.10)

## 편지의 전달방법

- 공문서 : “以郵行”, “以次行” 등
  - 편지 : 발신자 □ 전달자에게 부탁 □ 수신자에게 전달
    - 거연, 돈황과 같은 변경 지역 : 개인간 편지 왕래는 매우 곤란  
돈황한간(<政與幼卿、君明書>)(1871)의 “**道里辟遠**, 回往來希, 官薄身賤, **書不通**”
      - 발신인 : 답신 요구, 전달자에게 회신을 가지고 오도록 종용
  - “謹因…” 뒤에 적혀있는 인명, “往人”, “使人” 등으로 표현된 자들은 서신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뿐만아니라 수신자로부터의 회신을 다시 발신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거연한간 495 : “<彭與子侯書>, “謹因子春致書, 彭叩頭”
      - 발신자 : 彭
      - 수신자 : 子侯
      - 전달자 : 張子春

故言解誤叩頭比得謁見始餘盛寒不和唯為時平衣強奉  
司便致言解誤叩頭比得謁見始餘盛寒不和唯為時平衣強奉  
酉食愚憲毋渝焉叩頭數已辰子春累毋已子承革以彰故不  
二王竟返已亥年回乙卯年正月子春致志也中止復

司便致言解誤叩頭比得謁見始餘盛寒不和咱為時平衣長奉  
酒食愚憲毋渝焉叩頭數已張子春累仍已子亥奉以彭故不  
還已至意得已蒙厚恩甚厚謹因子春致書彭叩頭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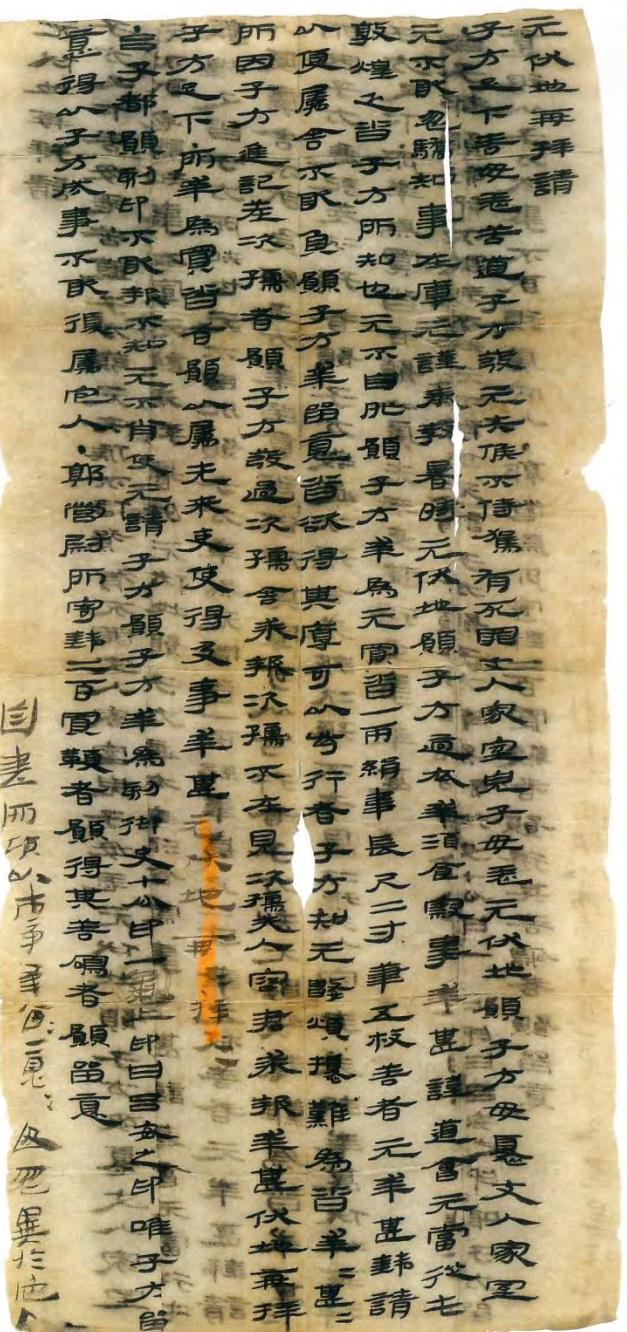
495.4B

495.4A

吏奴下薄賤多所迫。近官廷不得得尺寸閒數失往人甚母狀叩頭子侯不羞惡貧人收錄置意中殺身允以報厚恩叩頭因道彭今年母狀小疾內錢家室分離獨居困致母禮物至子侯君胥前甚母狀獨賜膳賀初歲宜當奔走至前追有行塞者未敢去署叩頭請俟間

主如不奇禮多所迫。丘前達可從去尺寸而無失。丘之母亦不羞惡。更奴下薄穢多所迫。近官廷不得去尺寸而聞數失。往入甚毋狀。叩頭子侯不羞惡。

## 懸泉置 帛書 : <원이 자방에게 보낸 서신(元致子方書)>



- 길이 23.2 센티미터, 너비 10.7 센티미터
- 작성한 뒤에 세로로 두 번 접고 가로로 세 번 접어 포개서 작은 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다. (가로 2.6, 세로 2.9 정방형 모양 32개)
- 서신 전문은 모두 10행 319자(중복문 4 포함)
- 필체가 다름, 앞의 9행은 漢隸, 마지막 1행은 다른
- 뒤는 발신인이 직접 쓴 것, 앞은 다른 사람이 대필 OR 보충내용
- 세 곳의 흑점 : “.”

### ○ 발신인 : 元, 수신인 : 子方

원이 자방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

-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傳言 및 자신의 지인이 구입하고 싶어 하는 물품을 부탁하려는 데 있다.

- 元이 子方에게 자기를 위해 가죽신, 비단과 가죽, 붓을 사달라고 함과 동시에,

- 次儒에게 편지를 전해주며 답장을 요구해달라고 부탁한 것  
그런데 차유가 집에 없으면 그 부인 容君이 답장해 주면 감사하다는 내용

- 지인인 呂子都의 인장 하나를 새겨주고. 郭營尉에게 채찍 하나를 사주라고 부탁한 것이다.

## 【원문】

### 元伏地再拜請：

子方足下，善母恙？苦道子方發，元先候不待駕，有死罪。丈人、家室、兒子母恙，元伏地願子方母憂。丈人、家室、元不敢忽驕，知事在庫，元謹奉教。暑時元伏地願子方適衣、幸酒食、察事，幸甚！謹道：會元當從屯敦煌，乏沓，子方所知也。元不自外，願子方幸爲元買沓一兩，絹韋，長尺二寸；筆五枚，善者，元幸甚。錢請以便屬舍，不敢負。願子方幸留意，沓欲得其厚，可以步行者。子方知元數煩擾，難爲沓。幸甚幸甚！所因子方進記差次孺者，願子方發過次孺舍，求報。次孺不在，見次孺夫人容君求報，幸甚，伏地再拜。子方足下。所幸爲買沓者願以屬先來吏，事得及事，幸甚。元伏地再拜再拜！呂子都願刻印，不敢報，不知元不肖，使元諸子方，願子方幸爲刻御史七分印一，龜上，印曰：呂安之印。唯子方留意，得以子方成事，不敢復屬它人。郭營尉所寄錢二百買鞭者，願得其善鳴者，願留意。自書：所願以市事，幸留意留意。毋忽，異於它人。

## 【번역】

원이 고개 숙여 거듭 절하고 인사드립니다:

자방 족하, 잘 지내고 계시지요? 고된 길을 자방께서 떠나시는데, 제가 때를 놓쳐 수레로 직접 전송도 하지 못했으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님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도 무탈하신지요? 저는 자방께서 걱정거리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과 부인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소홀하거나 함부로 대함이 없이 잘 모시겠습니다. 참고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더운 날씨에 자방께서는 옷 잘 챙겨 입으시고 음식도 잘 챙겨 드셔서 일 잘 보신다면 아주 기쁠 것입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때마침 저는 돈황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가죽신이 없는 것을 자방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니 자방께서 저를 위해 가죽신 한 켤레, 길이는 1척 2촌인 비단과 가죽, 그리고 붓은 질이 좋은 것으로 다섯 자루를 사다주신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돈은 시간 나는 대로 집으로 부쳐드리고 감히 떼어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방께서는 가죽신은 신고 면 길을 갈 만큼 두터운 것인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방께서는 제가 여러 차례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은 가죽신도 만들어 신을 수가 없기 때문임을 아실 것입니다. (사주신다면) 아주 아주 기쁜 일이 되겠지요! 자방을 통해 천거한 次孺라는 자는, 자방께서 지나가시다가 한번 집에 들러주시고, 답장을 부탁해주십시오. 차유가 없다면, 차유의 부인 容君이라도 만나보고 답장을 부탁해주신다면 아주 기쁠 것이니, 고개 숙여 거듭 인사 올립니다. 자방 족하. 산 가죽신은 먼저 온 군관에게 맡겨주시어 때마침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거듭 거듭 인사 올리겠습니다!呂子都가 도장을 새기고 싶어 하지만 감히 털어놓지(말씀드리지) 못한 듯 합니다. 제가 못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해서 자방께 御史印 풍격의 사인으로 七分(1.6cm) 크기에 손잡이 모양이 거북 모양이고, 손잡이에 도장 문양을 ‘呂安之印’이라 해주십사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직 자방께서는 유념하시고, 자방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 감히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하지는 않았습니다. 郭營尉께서 이백 전을 부쳐 채찍을 사려는데 소리가 잘 나는 것으로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씁니다: 부탁드린 대로 물건 사는 일은 유념하고 또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마셔서, 물건 구입에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私信에 반영된 변경(邊境)의 삶

## ○ 안부가 주요 관심사 : 善母恙 久不相見

- 서북 변경의 돈황과 거연 : 본래 흉노 지역, 무제이래로 군현설치와 사민 실시로 인해 한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
- 돈황과 거연지역과 같은 낯선 환경인 변경에서의 삶이란 결코 용이하지는 않음
- 더욱이 家鄉으로 멀리 떨어진 변경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오랫동안 떨어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가득한 삭막한 시간의 연속
- 따라서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항상 이들에 대한 안부가 매우 중요

伏地再拜言長孟足下善母恙久不相見得母他緩急有黃誌



507.1+507.2B

伏地再拜言長孟足下善母恙久不相見得母他緩急有黃誌

E.P.T.50:4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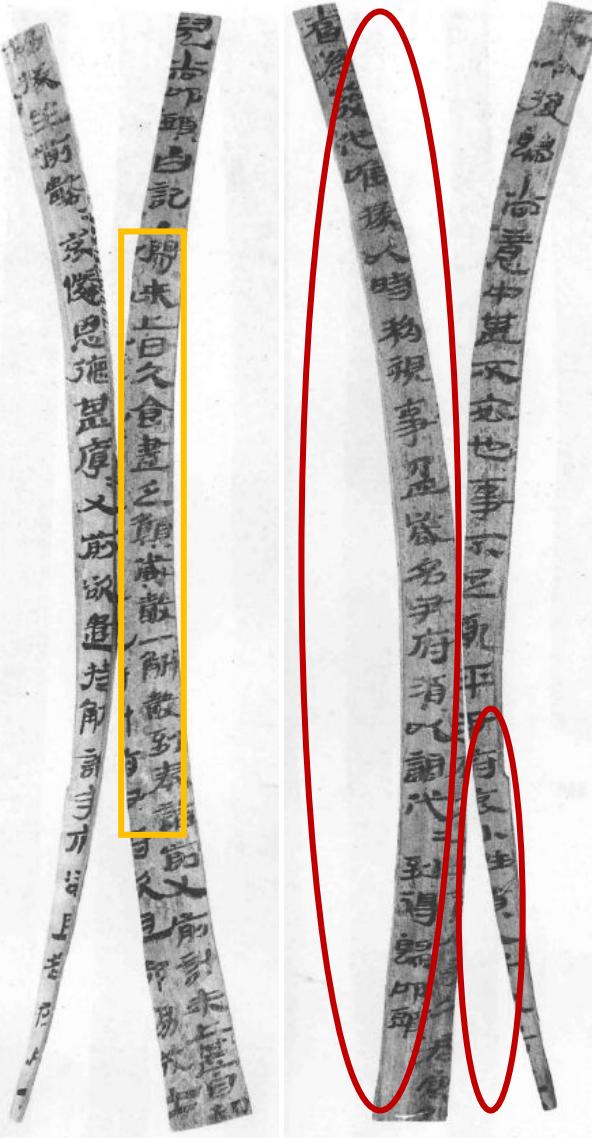
葉宋乃始張伯丈叩頭言  
子翹子玉足下善母恙聞者久不相見良苦迨塞上甚邑。母  
已年時去道里□□□□□□□□□□子翹子玉足□乃始□

E.P.T.50:42A

【2】 子翹子玉足下 善母恙 間者久不相見 良苦迨塞上

○ 변경 방비 관련 긴장되고 고단한 업무 :  
“甚苦候望事”, “苦候望”, “甚苦候望”

兒尙叩頭白記•開來上, 日久食盡乏。願貸穀一斛, 穀到奉詣前



尹府袁小姓貧人子、外居塞外，當爲發代。唯據以時移視  
事，盈歲名尹府，須以調代，代倒得歸。叩頭叩頭。

兒尙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립니다. 양연께서 늘 어여삐 여겨주시어  
은덕이 몹시 두텁습니다. 또 앞서 使令을 보내어 鮎子를 들고 (양연께)  
가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아에서 또 陽成의 士吏를 물러가게 하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려 하였으니, 여전히 몹시 온당하지 않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곳의) 일이 평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니, 관아에서는  
변방에 나가 지내고 있는 한미한 집안의 자식을 불쌍히 여겨 응당  
교대 인원을 調發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양연만이 제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으니, 滿期가 된 名簿를 관아에 보고해서 꼭 조발하여  
교대 인원이 오면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거듭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래에 군량이 다 떨어진 지 시일이 오래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곡식  
1석을 빌려서 곡식이 도착하면 밭들어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지난번 통계를 아직 올리지 못한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 편지에 반영된 변경의 삶

### ○ 안부가 주요 관심사 : 善母恙 久不相見

- 서북 변경의 돈황과 거연 : 본래 흉노 지역, 무제이래로 군현설치와 사민 실시로 인해 한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
- 이주민에게는 맞선 환경과 지역
- 타지역 소시를 접하는 유일한 통로

### ○ 편지의 주요 내용

- 변경 방비 관련 긴장되고 고단한 업무 : “甚苦候望事”, “苦候望”, “甚苦候望”  
敦煌漢簡 : “兒尙與楊椽書”(244), “時與翁系書”(1448)  
居延漢簡 : “宣與幼孫、少婦書”(10.16), “彭與子候書”(495.4),  
“曹宣與董房、馮孝卿書”(502.14+505.38+505.43)  
居延新簡 : “充與中君次公書”(EPT56.87)  
“葉宋乃始張伯丈與子翹子玉書(EPT50.42)
- 식량 및 물자 부족 등 “日久食盡乏”

## 内郡과 동일한 일상

거연한간 495.4 A 彭與子候書

제가 금년에는 상황이 좋지 못하고 약간의  
근심도 있으며 집에 돈도 보내지 못하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 매우 곤궁합니다. 예물을  
자후와 부인에게 보내지 못하니 매우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홀로 납일의 예물을**  
보내주시고 새해를 축하해 주시기 마땅히 달려가  
인사드려 하는데……

彭今年母狀，小疾，內錢家室，分離獨居，困致母禮物至子侯、君口前，甚母狀。獨賜臘，賀初歲，宜當奔(奔)走至前……

臘日

主教不許時多所向。丘南達可後去尺寸。有弟先達人已。母叔子也。子孫不繼。竟入仕錄。因充中敎官。以折辱回也。日久。因定心。少無事。西游小。於周易家室。見獨居。因取母祖。均王子孫。君崇前已。母狀獨陽尊。謂之前丘丘。蓋葬安。王布血布。洪室者。亦故。去恩。下。一。清母。而

495.4A

吏奴下薄賤多所迫近宦廷不得去尺寸閒數失往見甚母狀叩頭子侯不羞惡  
貧人收錄置意中殺身尤以報厚恩彭叩頭因道彭今年母狀小疾  
內錢家室分離獨居困致母禮物至子侯君胥前甚母狀獨賜膳  
賀初歲宜富奔走至前迫使行塞者未敢去署叩頭請候間

司便致言解誤叩頭比得謁見始餘盛寒不和唯為時平衣強奉  
西食恩意母命口頭教已長子春榮母已子矣奉以彩不

495.4B

司便致言解誤叩頭比得謁見始餘盛寒不和唯為時平衣強奉  
酒食恩懸毋渝如叩頭數已張子春累毋已子侯奉以彭故不  
遣已至意得已蒙厚恩甚厚謹因子春致書彭叩頭單

## 習與某君書

● 候長政叩頭言，臘到，願歸取臘具。習母狀……習臘殊，母用臘(후장 정은 머리를 조알이면서 아픕니다. 납일이 다다르니 납일 제사 도구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習]는 臘日 제사를 다른 (방식으로) 행하니 臘日에 필요한 제기[具]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十一月廿二日具記習叩頭死罪言  
君萬年粢食如常不哀憐賜記恩澤誠深厚得聞南方邑中起居心  
中雖喜習叩頭死罪死罪·教告尉史記即到·候長政叩頭言  
臘到願歸取臘具習母狀誠以月廿一日聽政一宿還屬政以

EPT 44:4A

## 戎宴請書:

- 주최 : 戎
- 대상자 : 第3-7燧 燧長
- 목적 : 변경의 문제이거나 燧의 효율적 관리 등과 같은 공무  
사적인 친교 모임일 가능성

- 연회의 모임이나 납일이나 초세의 행사가 변경지역에서  
진행 - 변경 역시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의 삶은 '변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사신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戎具少酒 :

謹請. 邑大夫官, 仄中功, 仄君都, 謝敖等三人同食, 五大夫幸臨戎, 戎  
叩頭幸甚幸甚. 第七三大夫, 第六三大夫, 第五三大夫, 第四三大夫, 第  
三三大夫, 謹會月廿四日日中, 母忽何君刑褚刑房  
(제가 작은 연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삼가 초청합니다. 邑大夫官인 仄中功, 仄君都, 謝敖 等 세 분께서  
함께 식사자리에 참석해주시고 다섯 大夫께서 초청에 응하여  
주신다면 머리 조아리며 매우 다행으로 여길 것입니다. 第七 三大夫,  
第六 三大夫, 第五 三大夫, 第四 三大夫, 第三 三大夫께서는 삼가  
이달 24일 정오에 만날 것이니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何刑褚、何刑房을 홀대하지  
말아주십시오)



居延新簡 EPT 51:224

戎叩頭幸甚. 第七三大夫第六三大夫第五三大夫第四三大夫  
第三三大夫謹會月廿四日中母忽何君刑褚刑房  
戎具少酒  
EPT51:224B

그 밖의 주요 편지

## I. 睡虎地秦簡 書信 : <黑夫、警與中書>(M4;11)



### 【개요】

길이 23.4, 너비 3.7, 두께 0.25cm의 木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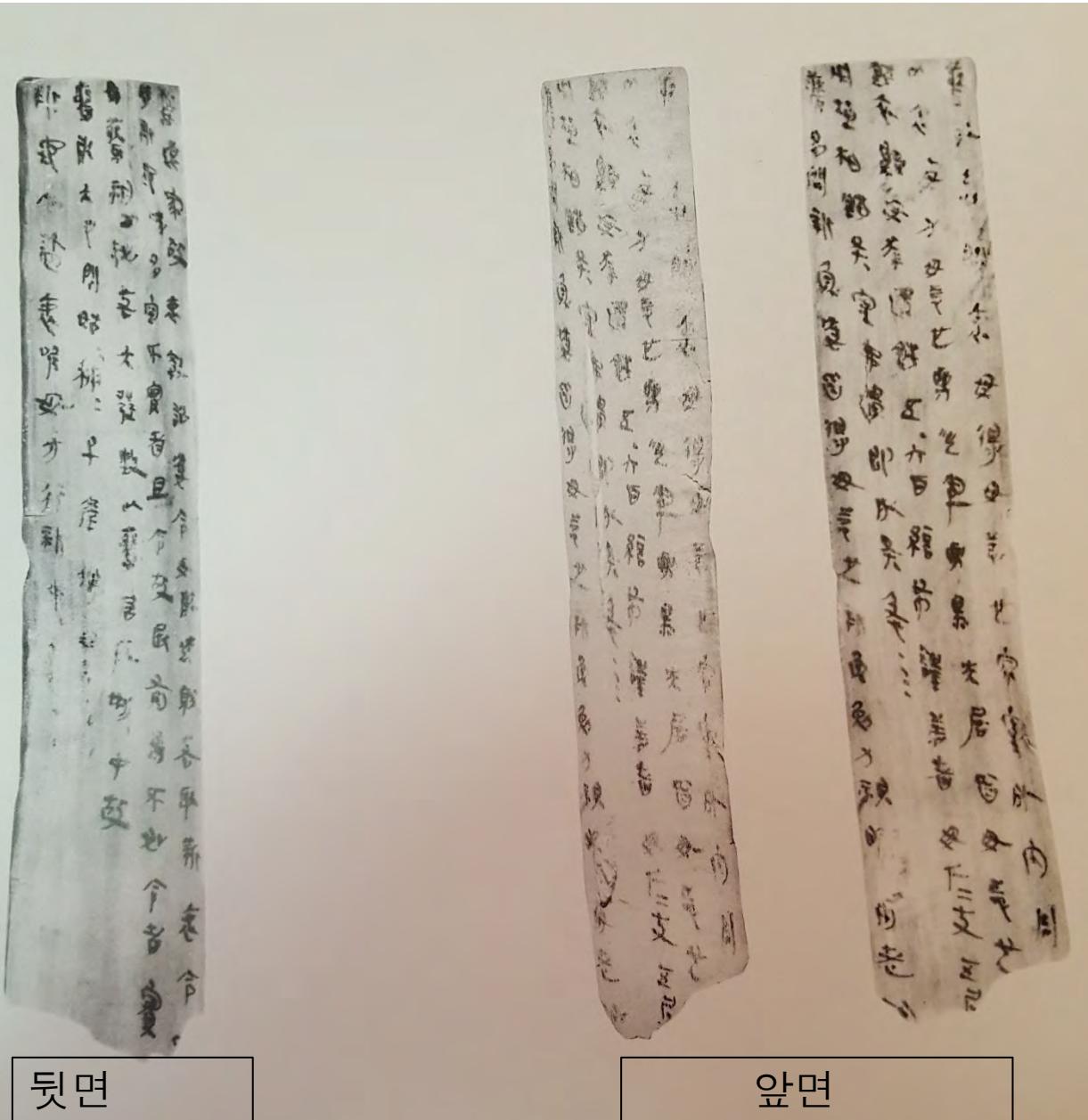
秦 隸書

발신인：“黑夫”와 “驚”，수신인：“中”

### 【주요 내용】

부와 경은 형제이고 南郡 安陸縣 출신으로 이 때에 淮陽전투에 종군하였다. 흑부는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家長인 어머니에게 돈과 옷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만약 안륙현에서 옷감(비단)이 비싸면 단지 돈으로 보내주면 자신이 회양일대에서 포를 사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다고 한다. 편지의 내용 가운데는 흑부와 경이 각각 고향의 親人們에게 안부를 묻고 있으며 경은 독자적으로 그의 妻子에게 안부를 묻는다. 아울러 부인에게 집안의 어른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한다.

## I. 睡虎地秦簡 書信 : <警與中書>(M4:6)



### 【개요】

殘長 16, 너비 2.8, 두께 0.3cm의 목독  
하단은 殘缺

양면 모두 秦 隸書

발신인은 驚이고 수신인은 表(11호 목독의 수신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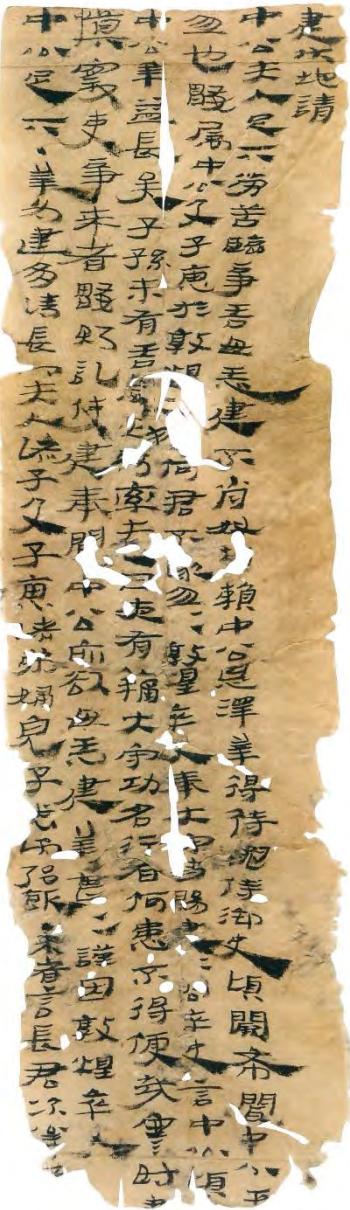
### 【주요 내용】

驚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과 옷감(布)을 보내주고 또한 교대로 부인이 노인을 보살펴 주고 中이 媯을 잘 지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한 고모와 고모의 아들 산의 정황에 대한 안부와 집안사람들의 안전을 바라고 있다.

두 통의 편지의 서술 습관과 필적은 모두 일치하지 않으며, 위의 편지의 “중”이 <警與中書>에는 “表”으로 쓰여진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두 통의 편지는 각각 흑부와 경이 집에 의복、옷감、돈이 필요하다는 일을 기록한 것이고 동시에 진나라 군대의 병사는 스스로 의복과 경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 II. 漢代 懸泉置 帛書 : <건이 중공·부인에게 보낸 서신(建致中公、夫人書)>



길이 : 세로 19, 가로 5

“●” : 주제(내용) 전환

- 1) 建 : 현재 시어사의 직책
- 2) 가족과 함께 돈황에 감, 이 곳 현천치가 중공의 근무지
- 3) , 5) : 건이 태수나 중공과 서신 왕래 시, 돈황졸사가 중간에서 전달
  - 졸사 : 도위부에 소속된 문관으로 문서행정을 담당
  - 건이 졸사에게 중공의 근황을 물은 이유 : 친분관계, 졸사의 업무로서 가장 신속 정확하게 중공과 관련한 근황을 파악
- 4) 중공이 건의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 : 두 집안 사이의 친분 두터움
- 6,7) 건의 인맥 : 장경, 장군, 차공 등과의 지속적인 관계
  - 부인과 자제에게도 안부



### III. 敦煌漢代書簡：《時與翁系書》

觚는 모두 8각인데 길이는 37cm

내용 : 전반부- 조서 133자. 후반부-편지 79자, 상관성 없음  
동일인이 서사

발신인 : 시(時), 수신인: 옹계(翁系)

#### 【원문】

5각-賤弟時謹伏地再拜請：翁系足下，善母恙？甚苦候望士事。方春不和，時伏願翁系

6각-將侍近衣、幸酒食、明察蓬(烽)火事，寬忍小人，毋行□□。時幸甚甚。

7각-伏地再拜請，

8각-時伏願翁系，有往來者幸賜記，令時奉聞翁系(糸 + 反 = 緩)急、嚴教。

# 안휘성 출토: 天長漢墓簡牘

卿體不父  
勿日草無當  
父  
復  
橫  
方  
東  
陵  
年  
莫  
橫  
宮  
母  
王  
母  
下  
取  
不  
始  
生  
情  
同  
宮  
休  
死  
革  
內  
地

丙  
充  
國  
與  
孟  
書

貢  
旦  
化  
地  
画  
排  
誦  
獵  
子  
差  
馬  
乞  
不  
貢  
且  
頓  
厚  
塗  
到  
東  
都  
育  
事  
至  
虧  
不  
方  
黃  
具  
增  
家  
死  
方  
蘇  
罷  
五  
可  
官  
各  
因  
能  
而  
一  
家  
也  
童  
日  
西  
又  
自  
五  
為  
夏  
詩  
歌  
逐  
上  
桃  
事  
顯  
以  
蓮  
詩  
印

莞橫與孟書

丙充國與孟書

貢且與孟書

## 결론

- 종래 진한사 연구가 국가권력의 이해라는 측면에 초점이 모아진 결과 제도 속에 갇힌 민의 연구로 그 내용이 제한되어 제국질서하의 일상의 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냄
- 일정한 형식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신은 이미 **제한된 형식의 공문서 형식을 뛰어 넘어 비교적 자유롭게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기초하여 작성**
- 따라서 그 내용 역시 변경 수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비롯하여 부족한 물자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의 요청 등은 至難한 변경의 삶을 생생하게 전함
-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변경의 생활일지라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節日을 축하하고 연회에 주변 인물들을 초대하는 情景은 변경의 특수한 상황하에서 내지의 평범한 제민들이 지내는 **일상의 맛을 향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사신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연회의 모임이나 臘日이나 初歲의 행사가 변경지역에서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변경 역시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서의 삶은 ‘변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사신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Grazie!